

통일교의 욕망 이해와 욕망 다스림

이 재 영

선문대학교

〈요 약〉

통일교는 “욕망은 본래 인간의 창조성이었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타락성을 갖게 되었다.”고 본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해와의 타락 사건이 인간이 죄성을 갖게 된 동기가 되었고, 이 죄성이 근성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이 선보다 악을 지향하게 된다. 따라서 구원의 보충적 기능을 갖는 종교교육에서 인간의 욕망을 다스리는 것을 종교교육의 한 과정으로 삼아야 한다.

통일교에서 이해하는 욕망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욕망의 이중성이다. 욕망은 본심을 따라 작용하면 창조의 원동력이 되지만 사심을 따라 작용하면 파괴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욕망은 확장성을 갖는다. 욕망은 제어하지 않으면 나선형으로 계속 확장된다. 셋째, 욕망은 주관성을 갖는다. 욕망은 대상을 소유하고 지배하려는 속성을 갖는다.

이러한 욕망을 제어하는 것이 인간의 양심이다. 양심은 욕망을 항상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한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선의 절대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양심은 자신이 선이라고 하는 기준대로 욕망을 이끌어 간다. 양심을 절대 선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심정이다. 심정은 하나님의 창조성으로 대상을 사랑하고 기쁨을 돌리고자 하는 속성이 있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과 심정 일체를 이루고 살면 욕망은 늘 본심대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

통일교에서 욕망을 다스리는 수행방법으로 (1) 위하는 삶의 실천 (2) 절제와 금욕생활 (3) 혼독의 생활화 등이 있다. 이러한 것들을 실천하게 하는 것이 종교교육의 과정이 된다. 명상, 묵상, 기도, 헌신과 봉사 등의 종교적 수행은 결국 인간의 욕망을 다스리기 위한 종교교육의 실천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핵심 주제어: 욕망, 죄성, 양심, 심정, 욕망의 다스림, 욕망의 이중성, 욕망의 확장성, 욕망의 주관성

I. 들어가는 말

대부분의 종교는 인간의 욕망을 죄악시하며 이를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 욕망이 탐욕으로 확대되고, 그 탐욕이 죄라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따라서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욕망을 다스리는 일이 선결되어야 한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자라서 사망을 낳는다.”(야고보서 1장 15절)는 기독교 성경 말씀처럼, 욕망은 죄의 원천이며 인간 생활의 무질서와 파멸을 가져온다.

한편 인간의 욕망은 삶에 대한 의지와 역동이 된다. 인간에게 욕망이 있기 때문에 성장하고 완성하려고 하는 욕구를 갖게 된다. 욕망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가치중립적인 특징이 있는데 욕망이 본심(本心)을 지향하는가, 사심(邪心)을 지향하는가에 따라 선도 될 수 있고 악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욕망의 방향성을 제어하는 것이 양심이다. 인간은 창조본성으로서 선을 지향하는 양심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形象)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은 선을 지향하는 양심을 가지고 있다. 양심은 욕망이 항상 선의 방향으로 나가도록 이끌어 간다. 그러나 타락 인간은 무지의 상태에 떨어져 양심의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욕망이 선의 방향보다 악의 방향으로 빠지기 쉽다고 보는 것이 통일교의 욕망에 대한 관점이다.¹⁾

구원의 보충적 기능을 갖는 종교교육에서 욕망의 다스림을 가르치는 일이 핵심과제라 할 수 있다.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욕망을 다스리는 일이 구원과정의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욕망은 종교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중심 주제이며 키워드(key word)가 된다.

통일교 교리서 『원리강론』 총서론 첫 장에서 욕망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욕망이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한다고 말한다. 악을 지향하는 욕망은 인간을 불행으로 이끌어 가고 선을 추구하는 욕망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행복은 어떻게 해서 오는 것인가?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욕망이 이루어질 때 행복을 느끼게 된다. 욕망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그 본래의 의미를 흐려서 생각하기 쉽다. 그것은 욕망이 선보다 악으로 나아가기 쉬운 생활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의를 맺는 욕망은 인간의 본심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본심은 이러한 욕망이 자신을 불행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악을 지향하는 욕망을 물리치고 선을 추구하는 욕망을 따라, 본심이 기뻐하는 행복을 찾으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²⁾

1)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편, 『원리강론』(서울: 성화사, 1991), 15쪽.

2) 위의 책, 13쪽.

욕망의 문제를 다루는데 ‘욕망이 어떻게 발현되는가?’ 하는 문제와 ‘그 욕망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본 논문에서는 통일교에서 보는 욕망의 발현과 그 욕망을 다스리는 종교교육의 과정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II. 통일교의 인간과 욕망의 이해

1. 인간의 창조와 욕망

『원리강론』에 의하면 모든 존재에는 성상(性相)과 형상(形狀)의 이성성상(二性性相)이 상대적 관계로 존재한다고 한다. 즉 두 가지 성품이 상호의존적이고, 상호 보충적으로 수수작용(授受作用)을 하면서 생존하고, 번식하고, 작용하게 된다. 이성성상의 관계는 존재를 위한 필연의 관계로 어느 한 쪽을 부정하면 다른 한 쪽이 존재할 수 없는 관계다. 존재는 본질적으로 그 구조와 체계가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³⁾

존재하는 것은 모두 이성성상의 프랙털(fractal) 구조와 단계로 되어 있다. 만물의 최소 단위인 소립자로부터 원자, 분자, 동식물의 세계, 우주, 신에게 이르기까지 이성상의 프랙털 구조와 단계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보이는 물질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존재의 내면세계도 이성성상으로 존재한다.

존재하는 것은 모두 외형에 있어서는 양성(陽性)과 음성(陰性)의 이성성상으로 존재하고, 본질에 있어서는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으로 존재한다. 여기서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은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의 속성이다. 즉 성상에도 양성과 음성, 형상에도 양성과 음성이 속성으로 내재한다.

인간 역시 보이는 육체와 보이지 않는 영인체로 존재한다. 인간의 육체는 성상인 육심(肉心)과 형상인 육체(肉體)로 되어 있으며, 영인체는 성상인 생심(生心)과 형상인 영체(靈體)로 되어 있다. 육체의 육심과 영인체의 생심이 수수작용을 하는 것을 마음작용이라고 한다. 육심과 생심이 균형 있는 수수작용을 할 때 마음작용에서 일어나는 욕망이 본심을 따를 수 있지만 육심이 지배하는 욕망이 강할 때 사심을 따라가는 욕망이 된다.⁴⁾

인간의 마음이 어떤 대상과 수수작용을 하면 대상을 자각하게 되는데, 여기서 욕망이 발현된다. 그 대상을 대하면서 본심을 지향하면 선의 욕망이 되고, 악을 지향하게 되면 사심이 된다. 욕망이 어떤 대상과 상대기준을 맺어 어떻게 수수작용 하는가에 따라 본심이 될 수도 있고 사심이 될 수 있다. 즉 욕망이 선의 절대 기준인 하나님과 수수작용을

3) 위의 책, 31-35쪽.

4) 위의 책, 72-73쪽.

하게 되면 본심이 작용하고, 악의 표상인 사탄과 수수작용을 하게 되면 사심이 작용한다.

본심의 작용으로 선을 지향하는 마음의 현상을 양심작용이라고 한다. 인간은 본래 선의 절대기준인 창조주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본성적으로 선을 지향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인간은 인간조상의 타락으로 무지한 상태에 떨어졌기 때문에 마음은 선의 절대적 기준을 알지 못하고 인간 스스로 선이라고 판단하는 것을 지향하게 되는데 이것을 양심이라고 한다.⁵⁾

『원리강론』에서 인간은 타락으로 인하여 무지(無知)한 상태에 떨어졌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무지한 상태에 있는 인간의 양심이 지향할 수 있는 선의 절대적인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양심을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충돌이 일어난다. 양심이 지향할 수 있는 절대 선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선이라고 주장하는 일에도 투쟁과 파괴가 일어나게 된다. 이렇듯 욕망이 선을 지향할 수도 있고 악을 지향할 수도 있는 것은 인간의 양심이 절대 선의 기준을 지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욕망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과 관계 맺고 싶거나 소유하고 싶은 마음의 지향성’이다. 욕망이 대상과 관계를 맺고 소유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창조본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성장하고 완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된다. 따라서 욕망 자체를 선하거나 악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그 욕망이 절대 선에 기준을 둔 양심의 지향성에 의해 작용하는가, 아니면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지향하는가에 따라 욕망은 창조의 동력이 될 수도 있고 파괴의 동력이 될 수도 있다.

2. 인간의 타락과 욕망

통일교는 구약성서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설화에서 인간 타락의 동기와 구원에 대한 실마리를 찾고 있다. 『원리강론』에 의하면 인간의 타락은 인간 조상 아담과 해와의 과분한 욕망에 의해 타락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아직 하나님의 창조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에 있는 미완성기의 아담과 해와가 ‘때 아닌 때에 때의 것을 바라는 과분한 욕망’으로 타락되었다는 것이다.⁶⁾

기독교 성경에서 말하는 아담과 해와가 실존 인물이었는가 하는 문제는 논외로 접어두더라도 우리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인간조상을 추론할 수 있다. 아담과 해와는 구약성서 모세오경 기록자들이 추론한 인간조상을 표상한 인물이다. 인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태초의 인간시조를 아담과 해와로 명명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담과 해와는 고유명사로서의 이름이라기보다 보통명사로서의 인간시조를 말한다.

귀납적인 추론을 하더라도 인간의 시조를 상상할 수 있고, 현상 세계를 통해서 인간시

5) 위의 책, 73쪽.

6) 위의 책, 90쪽.

조의 타락 동기와 과정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오늘날 인간의 현상(現象)을 놓고 보면 인간의 타락 동기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다. 현상의 세계를 놓고 볼 때 인간의 타락의 동기는 욕망이고, 욕망 중에서도 애욕(愛慾)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거슬러 올라 갈 수 있는 역사의 시점(始點)에서부터 인간을 고뇌와 파멸로 유인한 것이 바로 인간의 애욕이다.

창세기의 창조설화에 의하면 아담과 해와는 신생아로 창조되어 완성을 향하는 성장기에 타락한 것으로 본다. 해와가 하나님의 창조원리와 스스로의 책임분담에 의하여 완성이야 할 미완성기에 뱀으로 비유된 천사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것을 아담에게 따먹으라고 유혹한 것이 타락의 동기였다고 한다. 즉 천사가 해와를 유혹하고 다시 해와가 아담을 유혹한 것이 타락의 원인인데, 통일교는 이 유혹의 동기와 과정이 애욕이라고 본다. 즉 천사와 인간이 자신의 위치가 아닌 위치에서, 때 아닌 때의 것을 바라는 과분한 사랑의 욕망에 의해 타락의 기원이 된 것이다.⁷⁾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동산의 아담 가정은 인간 세상의 원형(原形)이며, 오늘날 인간 세상의 축소판이다. 역사 이래 인간들은 에덴동산에서 벌어진 최초의 사건을 대물림하고 있으며 반복해서 모방하고 있다. 에덴동산에서 인간시조의 비원리적 애욕에서부터 하나님의 창조원리 파괴, 사랑의 질서 파괴, 소유의 질서 파괴가 벌어졌고 인간은 이 사건을 대물림하고 모방하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이 타락행위를 아담 가정으로부터 대물림하고 모방하는 것은 인간시조 아담 가정에서 물려받은 타락성 본성이 있기 때문이다. 타락성 본성은 아담 가정에서 시작된 죄성이 인간에게 유전되어 내려오는 것을 말한다. 즉 시기, 질투, 혈기, 교만이 인간 타락성의 본성인데, 이 타락성 본성이 아담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인간을 최악의 길로 유인하는 요인이 된다.

타락성 본성은 아담 가정에서 벌어진 타락의 동기와 과정에서 획득된 죄성(罪性)이다. 아담 가정에서 죄의 시초는 천사의 욕망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천사도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로서 창조의 본성인 욕망과 지능을 가진 존재였다. 천사의 위치와 역할은 하나님 창조를 돕고, 미완성기의 아담과 해와를 도와 그들이 완성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아담과 해와가 완성하면 천사도 아담과 해와의 주관을 받아야 할 종의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창조의 원리와 질서가 천사의 과분한 욕망으로 무너지게 된 것이 에덴동산에서 실낙원의 동기다. (1) 천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담 해와를 사랑하지 못하고, (2) 종으로서의 위치에서 인간을 유혹하게 되었고, (3) 인간의 주관을 받아야 할 천사가 인간을 주관하게 되었으며, (3) 천사의 유혹을 받은 해와는 다시 아담에게 죄를 전가하게 된 것이다.⁸⁾

7) 위의 책, 91쪽.

8) 위의 책, 100-102쪽.

『원리강론』에서는 위 네 가지 사건으로부터 죄의 뿌리가 되는 타락성 본성, 혹은 타락성 근성이 비롯되었다고 본다. 아담 가정에서 성립된 타락성 본성이 아담 해와의 후예인 인간들에게 유전되고 모방되는 것이다. 인간에게 유전되는 타락성본성은 인간에게 원형으로 남아 있고, 아담 가정에서 있었던 최초의 원형적 사건을 반복하므로 오늘의 죄악세계를 만들게 되었다.

프로이트(Sigmund Freud)가 인간은 출생시부터 원초적인 성욕(id)을 갖고 태어난다고 본 것은 『원리강론』에서 보는 인간의 타락성의 발현과 상당한 일치를 보인다. 『원리강론』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욕동으로 인해 에덴동산에서 천사와 해와, 해와와 아담 간에 사랑의 질서가 파괴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인간조상의 타락성 본성이 인간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유전된다.

인간조상의 타락성본성은 융이 말한 인간 무의식에 자리 잡은 “원시적 동기”가 된다.⁹⁾ 인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시적 동기와 심상들이 인간의 무의식에 자리 잡게 되었고, 무의식 세계의 욕동 표출이 인간의 욕망이다. 이 욕동의 표출로 인간은 인간조상의 타락행위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3. 욕망의 특성

위에서 고찰한 「인간의 창조와 욕망」, 「타락과 인간의 욕망」의 이해를 통해 통일교가 보는 욕망의 특성을 욕망의 이중성, 욕망의 확장성, 욕망의 주관성으로 정리해 보았다. 이러한 특성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다.

첫째, 욕망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욕망은 창조의 욕동이 될 수도, 파괴의 탐욕이 될 수도 있다. 욕망은 창조성을 가질 수도 있고, 파괴성을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욕망이 창조성을 가질 수도 있고 파괴성을 가질 수 있음은 그 욕망이 본심을 지향하느냐 사심을 지향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통일교는 본래 인간의 욕망이 본심을 지향하도록 창조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타락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심을 지향하는 욕망이 발현된다고 한다.

둘째, 욕망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욕망은 제어하지 않으면 끝이 없고 계속 확장되는 경향성을 갖고 있다. 인간에게 소유에 대한 욕망, 명예에 대한 욕망, 권력에 대한 욕망 등은 끝없이 높아지고 넓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나선형으로 확장되는 욕망을 제어하고 본심의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양심이다. 양심은 항상 선을 지향한다. 양심이 이렇듯 선을 지향하는 것은 인간이 선의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절대 선의 기준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지 않을 때 양심은 올바르게 작용할 수 없는 것이다.

9) 권석만, 「욕망의 자각과 조절」, 정준영 외, 『욕망-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서울: 운주사, 2008), 262쪽에서 재인용.

셋째, 욕망은 주관성이 있다. 『원리강론』에 의하면 주관성이란 본래 대상에 대하여 창조성을 발현시켜주어 창조목적에 성취하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¹⁰⁾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인간의 주관성은 대상을 소유하고 지배하고자 하는 특성을 갖게 되었다. 인간의 부, 명예, 권력에 대한 욕망은 대상을 소유하고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창조본성의 주관성은 대상의 창조목적에 완성하도록 돕는 창조성을 갖지만, 타락한 인간의 주관성은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대상을 소유하고자 한다.

본심과 사심의 욕망이라는 이중성에서 본심의 방향으로, 나선형으로 확장되는 인간의 탐욕에서 본심의 확장으로, 파괴성의 주관성이 창조의 주관성으로 향하는 욕망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마음이 심정적 바탕을 이루어야 한다. 심정은 ‘사랑하고자 기쁘고자 하는 충동’으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쁨을 드리고자 하는 충동이고, 수평적으로는 인간을 사랑하고 기쁨을 주고자 하는 충동이다. 인간 마음의 바탕이 심정으로 충만하게 되면 사심의 욕망은 발현될 수 없고, 욕망이 본심대로 작용하여 창조와 사랑을 향해 작용을 하게 된다. 이 마음의 바탕을 심정적 바탕이 되게 하기 위한 과정이 종교적 수행이다.

Ⅲ. 통일교의 구원관과 욕망의 다스림

1. 인간의 구원과 욕망의 다스림

통일교는 인류역사를 복귀섭리 역사라고 말한다. 즉 ‘인류역사는 타락한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목적에 완성이 하기 위하여, 그들을 창조본연의 인간으로 복귀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섭리역사’라고 본다. 복귀 섭리는 창조목적에 다시 찾아 이루려는 재창조 섭리이기 때문에 창조원리에 의하여 섭리하게 되는데, 이를 복귀원리라고 한다. 복귀원리는 바로 구원의 원리가 된다. 복귀라는 말에서 주는 의미처럼 창조본연의 세계로 돌아가는 원리를 말한다.¹¹⁾ 이러한 복귀의 원리를 탕감복귀 원리라고 한다.

탕감복귀란 무엇이든 본연의 위치와 상태 등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본래의 위치와 상태로 복귀하려면 반드시 거기에 필요한 어떠한 조건을 세워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세워서 창조본연의 위치와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탕감복귀라고 하며, 탕감복귀를 위해서 세우는 조건을 탕감조건이라고 한다.¹²⁾

10)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편, 앞의 책, 61-62쪽.

11) 위의 책, 229쪽.

12) 위의 책, 227쪽.

인간의 타락은 결국 인간 욕망의 타락이라고 할 수 있다. 본래 창조성으로 창조되었던 욕망이 타락성으로 전락한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구원은 창조본연의 욕망을 회복하는 것이다. 창조본연의 욕망 회복은 욕망의 선화(善化), 혹은 욕망의 정화(淨化)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욕망의 선화(善化)나 정화(淨化)는 탕감복귀원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타락성의 욕망을 창조성의 욕망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에게 타락성 본성이 자리 잡게 된 반대의 경로를 취하는 탕감조건을 세워야 한다.¹³⁾ 즉 인간 조상 아담과 해와가 타락한 반대의 경로를 통해 인간의 타락성을 해탈할 수 있다. 인간의 타락으로 획득된 죄성 즉 시기, 질투, 혈기, 교만 등의 타락성을 해탈하기 위해서는 반대의 경로인 사랑, 온유, 순종, 겸손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다. 인간 조상이 타락성을 갖게 된 동기와 경로, 그리고 그 반대의 경로는 다음과 같다.¹⁴⁾

첫째, 하나님의 입장에 서지 못하였다. 해와를 유혹한 천사는 아직 미완성기에 있는 아담과 해와에 대하여 하나님과 같은 입장에서 그들이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했다. 그러나 오히려 천사의 과분한 욕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진 아담과 해와를 유혹하여 타락시켰다. 천사가 미완성기의 아담과 해와에 대하여 하나님의 입장에 서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심정으로 그들을 사랑해야 함을 말한다. 마찬가지로 인간 세상에서도 욕망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같은 심정으로 인간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 자기의 위치를 떠난 것이다. 천사장 누시엘은 아담과 해와의 완성을 도와야 할 종의 위치에서 불의(不義)한 욕망으로 자녀의 입장에 있었던 아담과 해와를 유혹한 것이다. 자기의 분수와 위치에 맞지 않는 욕망에 따라 행동한 것이 타락성의 원인이 된 것이다.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창조목적에 가지고 있고 이 창조목적이 존재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인간은 자기의 위치가 있고, 자기의 위치에 합당한 욕망이 작용할 때 창조의 질서가 세워진다.

셋째, 주관성이 전도(顛倒)되었다. 인간의 주관을 받아야 할 천사가 해와를 주관하였고, 아담의 주관을 받아야 할 해와가 거꾸로 아담을 주관한 데서 타락의 원인이 되었다. 이와 같이 자기의 위치를 떠나서 주관성이 전도되므로 인간의 타락성 본성이 발현된다. 인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다. 인간에게는 위격(位格)의 질서가 있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도 위격의 질서에 따라 주관의 위계질서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격의 질서 안에서 욕망이 다스려질 수 있는 것이다.

넷째, 범죄 행위를 번식하는 것이다. 성서에 보면 천사의 유혹으로 타락한 해와가 다시 아담을 유혹하였다고 하였다. 해와가 자기의 죄를 아담에게도 번식시켜 그를 타락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자신의 타락행위에 타인을 끌어들이는 타락성본성을 갖게 된 것이다. 타락성은 범죄 행위에 타인을 끌어들이거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경향성이 있다. 범

13) 위의 책, 231쪽.

14) 같은 책.

죄의 행위의 번식은 욕망이 확장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욕망의 확장성을 막기 위해서는 선한 뜻과 선한 행위를 확장해 나가야 한다.

2. 심정의 계발과 욕망의 다스림

통일교에서는 하나님을 심정의 하나님이라고 이해한다. 여기서 심정이라는 말은 사전에서 규정짓는 일반적인 개념과 다르다. 심정은 ‘기쁘고자 사랑하고자 하는 충동’으로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동기가 되며, 구원의 동기가 된다. 하나님은 심정의 하나님으로 기쁨과 사랑을 위한 대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다.¹⁵⁾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은 기쁨과 사랑의 대상을 잃고 슬픔과 한(恨)의 하나님이 되었다. 인류역사는 절대자 하나님이 사랑과 기쁨의 대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시는 구원섭리 역사요, 창조본연의 세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복귀섭리역사가 된다.

인간의 타락은 바로 하나님의 심정에 대한 배신이요 유린이다. 하나님과 심정일체가 되어 기쁨과 사랑을 돌려야 할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에 반응하지 못하는 인간이 된 것이다. 따라서 구원이란 심정을 회복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심정일체를 이루는 것이다.

만약 인간이 하나님과 심정일체를 이루었다면 인간은 타락할 수 없었다. 하나님과 심정일체를 이루었다면 인간의 욕망은 사심을 지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이 내재할 때 사심의 욕망이 발현될 수 없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자 하는 본심만이 발현되게 된다. 사심을 지향한 욕망은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고통을 드리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욕망이 사심의 방향으로 작용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과 일체된 심정을 갖게 될 때 욕망은 본심을 따라 사랑과 선을 지향하게 된다. 따라서 타락한 인간이 욕망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심정을 회복해야 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심정이 동기가 되어 창조된 존재로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심정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타락으로 그 심정이 사심에 가려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타락한 인간의 심정회복은 복귀원리에 의하여 가능하다. 통일교의 복귀원리에 의하면 타락 인간은 스스로 창조본연의 심정을 회복할 수 없다. 반드시 하나님과 심정 일체가 된 중보자 메시아를 맞아 심정을 회복할 수 있다. 통일교는 종교의 창시자들이 메시아적 역할을 하였다고 본다. 메시아는 개성을 완성한 즉 하나님과 심정 일체를 이룬 분으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¹⁶⁾

여기서 구원이란 타락으로 무지의 상태에 떨어진 인간이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심정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심정 일체되는 인간으로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인간이 하나님의

15) 통일사상연구원 편, 『통일사상 요강』(서울: 성화출판사, 1993), 58-61쪽.

16)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편, 앞의 책, 247-251쪽.

심정을 회복하게 될 때 욕망은 창조성을 가지게 된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분으로 스스로의 수행을 통해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한 분이다. 그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인지적으로, 정서적으로, 행동적으로 보여주는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통일교는 종교교육을 심정교육이라고 한다.¹⁷⁾ 종교교육은 심정적 인간을 목표로 한 인간의 형성, 인간의 심정계발과 유지를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과 심정일체화 된 인간 형성이 종교교육의 목표이며, 심정일체의 인간을 형성하기 위한 실천이 종교교육의 과정이 된다.

종교교육은 심정적 인간 회복을 위하여 진리에 대한 깨달음의 과정을 제공하는 것이다. 즉 창조본연의 심정을 품고 살기 위하여 생활 속에서 진리에 대한 깨달음의 과정을 제공하는 것이다. 진리에 대한 깨달음의 과정으로 삶 속에서 위하는 생활, 금욕 생활, 혼독 생활을 해야 한다.

1) 위하는 생활

모든 종교는 위하는 삶, 즉 이타적인 삶을 강조하고 있다.¹⁸⁾ 신앙인의 가장 큰 덕목을 ‘사랑’ ‘자비’ ‘인’으로 삼고 있다. 욕망은 대상을 소유하고, 지배하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타적인 삶의 실천이 욕망을 비우거나 다스리는 최선의 길이다. 이타적인 삶이 어떤 종교의 선교 목적이거나 가치관의 실현이라기보다는 신앙인의 인격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원리강론』과 통일교 창시자의 설교 내용의 핵심은 ‘위하여 살자’이다.¹⁹⁾ 『원리강론』과 말씀에 의하면 존재하는 것은 모두 ‘위하여 사는 존재’로 되어 있다고 말한다. 존재의 최소 단위인 소립자에서부터 우주에 이르기까지 ‘위하여 사는 존재’의 홀라키(holarchy)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존재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존재 목적이 있지만 보다 큰 존재를 위해서 존재한다. 소립자는 소립자 그 자체로서의 목적과 원자 형성을 위해 존재하고, 원자는 분자 형성을 위해 존재하며, 분자는 광물과 동식물을 위해 존재하고, 광물과 동식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고, 인간은 절대자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

『원리강론』에서는 이것을 존재의 이중목적(二重目的)이라고 말한다. 존재 자체를 위한 목적과 자신을 통합하는 보다 큰 존재를 지향하는 이중목적의 연체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²⁰⁾ 이중목적의 연체로서의 존재 이해는 통합심리학자 켄 윌버(Ken Wilber)의 존재하는 것은 홀론(holon)과 홀라키(holarchy)로 되어 있다는 주장과 상당히 일치한다. 윌버는 모

17) 심정교육이란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체휼하도록 하는 교육이며 심정 계발을 위한 교육이다. 이재영, 『심정교육론 연구』(서울: 성화사, 1989) 16쪽.

18) 기독교는 사랑, 불교는 자비, 유교는 인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고 있다. 사랑, 자비, 인은 이타적인 삶의 실천에서만 감득되어진다.

19) “위하여 살자”는 통일교 창시자 문선명 선생의 말씀집에 주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20)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편, 앞의 책, 52쪽.

든 존재의 단계는 저차원의 의식에서 보다 큰 차원의 의식의 세계를 지향하는 의식의 단계가 있다고 주장한다.²¹⁾

존재의 타락은 인간이 이중목적의 연체를 부정하고 자신만을 위한 삶이 될 때 일어난다. 이기적 욕망으로 자신만을 위하고, 보다 상위적 위격에 있는 존재를 부정하게 된다. 여기서 존재의 타락과 세계의 무질서가 이루어진다. 욕망은 상대를 사랑하고 기쁘게 하고자 하는 심정의 발현을 억제시킨다.

그러나 이타적 욕망을 갖게 되면 창조의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진다. 이타적 욕망은 인간에게서 상대를 사랑하고 기쁘게 하고자 하는 심정을 계발하는 동인(動因)이 된다. 창조의 질서와 조화를 위한 욕망이 되기 위해서는 이타적 욕망을 가져야 한다. 종교가 봉사하는 삶을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심정계발의 기제가 되기 때문이다.

2) 금욕 생활

대부분의 종교는 금욕생활을 강조하고 있다. 종교에서 금욕생활을 강조하는 것은 욕망을 다스리기 위함이다. 의식주 생활의 금욕뿐만 아니라, 육체적 쾌락을 절제하는 것은 욕망을 다스리기 위해서다. 통일교에서도 식욕, 성욕, 수면욕에 대한 금욕생활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금욕에 대한 훈련으로 통일교 신자들에게 금식, 순결, 기도 등의 신앙생활을 강조한다.

통일교의 금욕에 대한 이해는 탕감의 의미가 담겨 있다. 『원리강론』에서 타락 인간이 본연의 위치와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세워야 하는데 이 조건을 탕감조건이라고 한다.²²⁾ 인간의 타락이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탕감조건으로 금욕생활이 필요하다.

『원리강론』에서 인간의 복귀를 위해서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의 신앙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한다. 소생기 신앙단계는 금욕생활로 탕감조건을 세우는 단계이다.²³⁾ 소생기는 행함으로 의로움을 받는 행의(行義)시대 즉 율법적 신앙단계로 금지와 지시를 지켜야 한다. 즉 ‘하라’ ‘하지마라’를 계율을 지켜야 하는 시기다. 계율의 수행과 금욕적인 생활은 소생기 신앙단계에서 필요하다.

장성기는 신의(信義)시대라고 한다.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는 시대라는 의미다. 이 시대는 진리를 믿고 따름으로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다. 진리의 실체가 되어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진리의 실천을 통해서 타락성을 해탈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완성기는 시의(侍義)시대으로써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 되어 사랑의 본체가 되는 시기로

21) Ken Wilber, *Integral Psychology*, 조옥경 역, 『통합심리학』(서울: 학지사, 2008), 32-34쪽.

22)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편, 앞의 책, 229-230쪽.

23) 위의 책, 61-62쪽.

타락성을 완전히 해탈하고 하나님의 심정과 일체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 시기에 도달한 인간의 욕망은 더 이상 이기적이거나 타락성을 가진 욕망이 아니다. 오직 위하고자, 사랑하고자 하는 창조본연의 욕망이 된다.

소생기 신앙을 거치지 않고 장성기, 완성기 신앙에 진입할 수 없다. 소생기 신앙단계에서의 금욕생활 없이 심정계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욕생활을 통하여 마음을 비우게 될 때 탐욕이 억제된다. 금욕생활은 고통이 수반되게 되는데, 고통의 체험을 통하여 존재의 무상(無常)함을 느끼며, 소유욕을 버리게 될 때 심정이 발현된다.

3) 훈독(訓讀) 생활

종교는 전통적으로 경전(말씀)을 읽거나 암송을 강조한다. 말씀을 읽거나 강조하는 것은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한 의미가 있지만, 다른 한편 말씀의 훈독은 사심의 욕망을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중세의 가톨릭 수도사들이 성서를 필경하였던 것도 잡념이나 욕망을 다스리기 위해서였으며, 불교의 승려들이 독경이나 간경을 하는 것도 마음을 다스리기 위함이었다.

통일교에서도 아침과 저녁에 통일교 창시자의 말씀을 읽는 모임을 갖는데 이 모임을 훈독회라고 한다. 훈독회는 통일교 전통과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행의 한 과정이다. 통일교의 경전인 『천성경』을 훈독하므로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한 수행과정의 하나다. 훈독회는 죄성을 분립할 수 있는 효과를 갖는다. 말씀의 화육(化肉), 즉 말씀의 실체가 되면 파괴적인 욕망을 떨치고 욕망의 선화와 정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훈독회는 불교수행 가운데 간경(看經)과 같은 의미와 효과를 갖는다. 간경은 “부처님의 말씀을 몸과 마음으로 체인(體認)하여 우리들의 삶을 부처님의 삶으로 전환시켜 마음의 본성을 밝히고 깨달음을 성취해 가는 수행법”²⁴⁾이다. 즉 간경 수행을 통하여 무명(無明)에서 벗어나 탐(貪)·진(瞋)·치(痴)의 삼독을 다스릴 수 있으며, 신(身)·구(口)·의(意)의 삼업(三業)을 짓지 않는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훈독회를 통하여 타락성 본성을 해탈할 수 있으며, 삶 속에서 일어나는 시기, 질투, 혈기, 교만 등 타락성을 지향하는 욕망을 해탈하고 사랑, 온유, 겸손의 마음을 갖게 된다. 훈독회는 사심의 지향성을 끊고 본심의 지향성을 갖게 한다. 따라서 훈독회는 파괴적인 욕망을 버리고 심정을 계발하기 위한 수행과정이 된다.

24) 고명석, 『간경 현황과 수행지침의 방향』, 대한불교조계종 편, 『수행법 연구』(서울: 조계종출판사, 2005), 341쪽.

IV. 맺는 말

창조본연의 욕망은 ‘선하다’ ‘악하다’ 말 할 수 없다. 인간이 타락하여 무지의 상태에 떨어졌기 때문에 욕망은 본심이 지향하는 방향보다 사심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다. 인간의 양심은 욕망을 다스리도록 되어 있는데 인간이 무지에 떨어져 양심의 바른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욕망이 악을 지향하게 된다.

통일교는 인간의 욕망이 사심을 지향하는 것은 인간조상의 타락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즉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동산의 실낙원 사건에서 원죄를 낳게 되었고, 이 원죄의 죄성이 인간에게 유전되고 모방되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이 사심을 지향한다고 보았다.

통일교에서는 인간의 구원을 복귀라고 말하며, 구원의 원리를 복귀원리라고 한다. 복귀원리란 타락한 인간이 창조본연의 인간으로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인간 조상이 타락하여 죄성이 성립된 것을 타락성 본성이라고 하는데, 이 타락성 본성의 해탈은 복귀원리에 의해서 가능하다.

복귀원리의 핵심은 타락한 인간 스스로 타락성을 해탈할 수 없기 때문에 중보자가 되는 메시아를 맞이하여, 그를 통하여 잃어버린 창조본성을 회복하자는 것이다. 인간이 잃어버린 창조본성은 하나님의 심정이다. 메시아를 통하여 이 심정을 회복하면 인간의 욕망은 사랑과 선을 지향하는 창조본성의 욕망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된다.

심정은 사랑하고자, 기쁘고자 하는 충동을 말하는데 이 심정의 계발을 위하여 메시아를 맞이하고 그를 따라야 한다.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심정적 생활을 해야 한다. 심정을 계발하기 위해서는 종교적 수행이 필요한데, 이 종교적 수행이 위하는 생활, 금욕생활, 혼독생활이다.

참고문헌

- 김종욱 편. 『육망—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 서울: 운주사. 2008.
- 대한불교조계종 편. 『수행법 연구』. 서울: 조계종 출판사. 2005.
- 문선명선생말씀편찬위원회 편. 『문선명선생 말씀선집』. 서울: 성화출판사. 1992.
-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편. 『원리강론』. 서울: 성화출판사. 1994.
- 소병일. 「해결철학의 관점에서 본 육망의 지위와 역할」 『철학연구』 제32권(서울: 대한철학회, 1981).
- 이재영. 『심정교육론 연구』. 서울: 성화사. 1989.
- 통일사상연구원 편. 『통일사상요강』. 서울: 성화출판사. 1993.
- Wilber, Ken. *Intergal Psychology*. 조옥경 역. 『통합심리학』. 서울: 학지사. 2006.

원고접수: 2009년 10월 22일 1차심사: 11월 15일 게재승인일: 12월 1일

연구자 소개: 이재영

① 전공: 종교교육/소속: 신문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② 관심영역: 종교교육, 예배학, 수행과 명상

③ 주요논저: 『성약시대의 예배와 설교』 「청소년들의 죽음에 대한 의식과 종교교육」 「수행과정 공유를 통한 종교 간의 대화」 「통일교 수행방법과 영성계발」

④ E-mail: jaeylee2@hanmail.net

Abstract

The Meaning and Control of Desire from the Viewpoint of Unification Church

Lee, Jaeyoung

Sun Moon University

This paper is an attempt to explicate “meaning of desire” and “control of desire” from the viewpoint of Unification Church. Unification Church explicates that desire is originally a creative nature but it became a fallen nature by the fall of the first ancestors. In other words, the originally creative desire was tainted with vice through the fallen affairs of Adam and Eve in the Garden of Eden, and thereafter the desire has pointed toward viciousness rather than goodness. Therefore the religious education which is to supplement salvation should focus on how to discipline people for their vicious desire.

Unification Church explicates the desire as follows, First, the desire has twofold meanings. The desire can be creative power or destructive force depending on the direction of mind. Second, the desire has expansibility: if we do not control the desire, it is expanded continually with spiral climb. Third, the desire has ruling character: it tends to possess and rule the objects.

Conscience has function to control the desire. The conscience tries to lead the desire toward goodness. But the fallen human beings have lost the absolute standard of goodness, and in the absence of the absolute standard of goodness, the conscience gets to lead the desire in the direction of what they believe to be good.

Shimjung leads conscience in the direction of the original mind, for *Shimjung* is God's creative nature which loves objects with the heart of God, and pays the tribute of joy to God. So when we live by God's *Shimjung*, the desire gets to operate according to the original mind.

Unification Church recommends three ways to control the desire; (1) altruistic life, (2) moderate and ascetic life, and (3) scripture reading. These are the subjects of the religious education and the processes of the ascetic practice in Unification Church. Ascetic

practices like meditation, contemplation, prayer, devotion and service to the public can all be considered to ways of practicing religious teachings.

Key word : desire, control of desire, fallen nature, conscience, Simjung, original mind, altruistic life, ascetic practice.